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위원장 환영사

2017. 9. 16.(토), 천안 교보생명 계성원

안녕하십니까, 공론화위원장 김지형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서로 다른 분들입니다.
사시는 곳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같습니다.
행운을 붙잡으신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성인은 모두 몇 분일까요.
대략 4,25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500명에 들려면 8만5,000분의 1의 확률이 필요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의 선택하는 일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입니다.
한 분 한 분 후세에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 보다 더 큰 행운이 있을까요?

과거 역대 정부는 거의 일관되게 원전 확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원전을 새로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다른 노후 원전은 하나하나 폐기됩니다.
이렇게 하면 60년 후에는 원전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원전을 대신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높여가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고리 5.6호기 원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원전은 이미 착공되어 30% 가까이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이 원전에 대해서도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상당한 정도 공사가 진척된 데다가 건설을 중단하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 우선 지적되었습니다.
공약대로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를 놓고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최종 정책결정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만큼이나 생각의 차이도 심한 편입니다.

‘탈원이 옳으니 건설을 멈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탈원전은 잘못이니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고 반박이 맞습니다.

‘탈원전 여부를 떠나 이미 짓고 있는 원전까지 건설을 멈추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갈래 의견이 있습니다.

갈수록 논란이 치열해지면서 사회분열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열쇠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심사숙고의 과정입니다.

이런 국가적 중대사를 풀어나갈 지혜를 발휘하셔야 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가능한 지원을 다해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론화의 실천적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해 결정을 합니다.

정책결정이 정권을 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힘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된 전례들이 없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극한 투쟁으로 저항합니다.

종종 폭력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소모적인 갈등 양상으로 확산됩니다.

과도한 사회적 비용도 치루게 됩니다.

공론화는 이러한 구시대적 행태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시민대표단을 선정합니다.

시민대표단이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정부 정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이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합니다.

이것이 공론화 과정입니다.

‘투쟁’ 대신 ‘숙의’를 합니다.

시민대표가 정부 정책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합니다.

주권자인 시민이 관여하는, 지극히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숙의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민주주의 요체는 논의 절차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를 좁혀 나가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공론화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끼리 모여 함께 배우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권합니다.

이번 공론화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자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 편 가르자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대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우리 국민이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500인의 현자입니다.

현자에게는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진리의 길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출범 후 오늘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공정성 시비였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상처에 아파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먼저 뒤돌아보려고 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절차적 정의는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가장 앞장서 챙기겠지만, 이번 공론화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정부는 공론화를 부친 주체로서 시민참여단이 의견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어떠한 조치도 삼가야 합니다.

공론화 의제의 양측 의견을 이끌어주는 단체들 역시 공론화를 품위 있게 완수해 나갈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허위와 비방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언론매체 역시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격조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의식은 이미 아주 높게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민들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공정성에서 한 치도 흐트러질 수 없습니다.

남은 공론화 절차는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여러분만 믿고 의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 공론화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부디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역사의 위대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